

모피 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황재윤·김정미^{*,*}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ur Fashion

Jae-Yun Hwang·Jeong-Mee Kim^{*,*}

Ph. D. program,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6. 11. 12 접수; 2017. 2. 21 수정; 2017. 2. 2 채택)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transition process of fur costume from ancient times to 20th century, extracted esthetic characteristics, and then understood how the esthetic characteristics appear in the recent fur collection.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magical meaning was revealed on leopard fur that ancient chief priests wore on top of shenti to symbolize immortality and fur tunics to which christian symbol was added in Byzantine. During middle age and the Renaissance, extravagance appeared on sable and amin jackets that the noble decorated to show off their high status. During the rococo age and mid-20th century, sensuality and elegance appeared on the fur dresses that the female body was emphasized.

Second, in recent collection, extravagance appeared on over-sized and voluminous fox-coat, sexuality and elegance were revealed through mink-dresses and jackets with soft touch and gloss that curved-silhouette was emphasized. In addition, practicality and functionality were shown through short length and light, soft material, and activeness was in the mink jacket to which functional elements such as zippers and rubber were added. To pursue uniqueness and fun, fox jackets were made with over-sized vivid green color. Besides, abnormality and vulgarness appeared through the fashion with abnormal and distracted images with ambiguous forms and new processing methods applied.

Key Words: Fur fashion(모피 패션), Extravagance(사치성), Sexuality(관능성), Elegance(우아성), Activeness(활동성), Humor(유머성), Abnormality(기괴성), Vulgarness(저속성)

I. 서론

2014년 PWC 삼일회계법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모피시장의 규모는 약 300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이원형, 2015), 중국의 경우 2010년 해외 시장이 소비침체를 겪을 때도 18%

라는 높은 성장을 보였다(임지현, 2011). 그리고 모피 디자이너 또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미국의 경우 1985년에는 42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에는 400여명 이상에 달했다(장용훈, 2013). 디자인 또한 눈에 띄게 변화되고 있는데, 볼륨감 있는 오버사이즈 코트에 모노톤(mono tone)과 어스톤(earth tone)의 모피들이 주로 사용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케이프(cape)·베스트(vest)·크롭재킷(crop-jacket)·원피스(one-piece) 등에 루비(ruby)·사파이어(sapphire)·에메랄드(emerald)·터키석(turquoise) 등을 연상시킬 만큼 생동감 넘치는 컬러의 모피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피들은 부츠(boots), 모자, 클러치(clutch) 등 액세서리에도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모피소비의 평균 연령층도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이다(박선영, 2010).

한편 모피 관련 논문으로는 박주영(2002)의 모피 소재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강다혜(2007)의 현대 모피 패션 디자인의 이미지 특성 연구, 김영애(2012)의 모피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이유형(2009)의 모피 패션을 위한 디자인 개발, 임주희(2009)의 모피 패션 디자인 기획 모형 연구, 김지영(2014)의 모피의류의 상품화 과정에 관한 연구, 김지영(2014)의 밉크 모피 제품의 소모량 산출에 관한 연구, 황재윤(2015)의 1980년대 이후 모피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모피 소재의 특성, 모피 패션의 디자인 분석 및 개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모피 복식미에 관해서는 현대만을 다루고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시대를 아우르는 모피복식의 미적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모피패션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해 모피 복식미에 대한 통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피 복식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모피 복식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추출하여, 이러한 미적 특성들이 최근의 컬렉션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면밀히 분석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모피복식의 미적 특성을 이해하고, 모피패션 상품기획 시 디자인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모피 복식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패션 관련 국내·외 서적 및 선행논문을 통해 문헌연구를 진행하고, 범위는 고대부터 20세기까지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최근 컬렉션에서 나타난 모피패션의 미적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패션 전문지 『컬렉션(collection) 동아 TV』에서 모피 패션 사진 자료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컬렉션 동아 TV』는 파리(paris)·밀란(milan)·뉴욕(new york)·런던(london)의 4대 컬렉션의 사진과, 그에 따른 에디터의 상세한 설명이 있는 컬렉션 전문 매거진이다. 모피 패션은 일반적으로 모피를 사용한 패션을 말하는데,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모피로 된 의복을 전부 또는 하나 이상 착용하여 다른 아이템들과 코디하여 입은 차림을 일컫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 동아 TV』에서 모피 아이템을 전부 또는 하나 이상 착용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6년간의 사진 자료 총 382점을 분석하였다. 미적특성 분류는 패션 미학 관련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박사과정 대학원생과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및 강사를 포함한 8인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실시되었다.

Ⅲ. 모피 복식의 역사적 고찰

1. 고대

고대는 계급의 구분이 뚜렷한 사회로서, 생활의 중심은 농경과 유목에 있었고,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환경이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에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김민자 외, 2010).

이집트인들은 영원불사 사상을 가지고 있어, 생명의 상징물로 복식에 자연물이나 초자연적인 상징물 등을 부착하여 종교적 염원을 드러냈다. 한랭 기후, 온대 기후 및 아열대 기후에서는 실용적 차원에서 모피를 사용했지만, 열대 지역에서는 전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욕 차원에서 모피를 사용하였는데, 옷을 이용한 자기 과시는 자신의 부와 계급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이는 아름답고 진귀한 털가죽에 대한 수요를 창

출하였다. 특히 이집트에서 사자의 꼬리는 왕위를 상징하는 휘장이었으며, 짐승 가죽으로 된 복식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국가적 의식을 거행할 때 입는 대례복이었고, 레오파드나 팬서 모피튜닉은 왕족들이 착용하는 것이었다. 당시 인기가 있었던 스타일은 가죽을 어깨에 두르고서 동물의 발을 겨드랑이 아래로, 등 쪽으로 끌어당긴 후 리본으로 묶는 것이었다(Wilcox, T, 2010). <그림 1>과 <그림 2>는 제사장의 그림으로, 제사장은 풍요의 신인 오시리스(Osiris)를 상징하여 쉐티(shenti)위에 레오파드(leopard)와 팬서 모피를 한 쪽 어깨에 둘러 입었다(김민자 외, 2010). 또한 모피는 병사들이 착용함으로써 그들의 용맹성을 나타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Wilcox, T, 2010).

로마의 복식은 형태, 색상, 소재, 장식에서 신분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난 것이 특징이다. 상의 원들은 펠리티(peliti)라고 하는 털가죽 옷을 입었으며 대의원들은 토가(toga)위에 양모를 걸쳐 그들의 계급을 구분할 수 있었고, 위엄을 드러낼 수 있었다. 또한 병사들은 레더 가죽으로 만든 코슬릿(corselet) 갑옷과 레더 튜닉을 입었고, 사령관들은 금속 갑옷에 레더 가죽 방패, 두건 등을 착용하여 일반 병사들과 구분하였다(Wilcox, T, 2010).

이처럼 고대의 모피복식은 영원불사에 대한 염원을 담아 종교적 의식을 치른 제사장의 대례복에서 주술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신분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이집트의 왕은 사자의 꼬리를 사용하였으며, 왕족들은 팬서와 레오파드 모피튜닉을 착용하였다. 또한 로마 대의원들은 양모 토가, 상의원들은 펠리티로 계급을 구분하였으며, 병사들과 사령관은 레더 튜닉, 방패, 두건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모피복식에서는 권위성이 나타났다.

2. 중세

중세는 비잔틴양식, 로마네스크양식, 고딕양식이 특징인데,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기독교적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복식에서는 기독교적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정홍숙, 1997).

비잔틴은 황권과 신권이 결합된 황제교황주의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인체를 은폐하는 일관된 복식을 볼 수 있다. 십자군 전쟁 후 사치스러운 모피가 대량 유입되며 비잔틴 귀족들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의복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복식에 동방직물의 화려한 색상과 장식으로 기독교적 신비로움을 더하고, 튜닉(tunic)에 담비(marten)와 아민(ermine)등의 고급모피로 장식을 하였다(김민자 외, 2010). 족제비는 오직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었고, 왕족들은 가장 진귀하고 값 비싼 러시아 흑담비를 대례복 안감으로 사용하였으며 성직자들은 아민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대례복을 착용하였다. 이 때 성직자들은 순수를 상징하는 흰색 아민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반대로 10세기의 성직자들은 사치스러운 붉은색 아민을 사용하였다.

로마네스크는 로마와 카톨릭, 비잔틴 동방요소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으로 복식에서도 여러 요소가 융합된 독특한 양식이 나타났다. <그림 3>은 로마네스크 여성의 모피 모습으로, 드레스 위에 모피로 된 맨틀(mantle)을 착용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모피조각들은 이어서 한 장의 천과 같이 사용하였는데, 비버(beaver), 담비 같은 모피를 주로 사용하였다(Wilcox, T, 2010).

고딕양식은 세속적인 특징을 가지며, 복식에서는 남녀 성차가 이루어지며 빠른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십자군 전쟁의 영향이 계속 이어져, 사치의 목적으로 모피를 사용하게 되어 귀족들은 모피를 사용해 가문의 상징과 문장을 복식에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점차 모피가 일반화 되면서는 계급을 구분하기 위해 귀족들은 흑담비·아민, 평민들은 수달·사향쥐 등을 사용하였다. <그림 4>는 귀족 여성이 우플랑드(houppelande)를 착용한 모습으로, 실크소재의 우플랑드 가장자리와 아랫단을 아민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는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 1395~1441)의 『지오반니 아르놀피니의 결혼』(The portrait of Giovanni Arnofini and his wife), 1434이라는 작품이다. 작품 속 부부는 부유한 상인계급으로, 남성의 경우 길이가 짧고 가장자리를 모피로 장식한 쉬르코(surcot)를 입고 있으며, 고급 소재인 비버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다. 여성은 소매부분이 모피로 장식된 우플랑



〈그림 1〉 이집트의 제사장
(출처: 서양패션 멀티콘텐츠, (2010), p.8.)



〈그림 2〉 이집트의 제사장
(출처: The mode in furs, (2010), p.92)



〈그림 3〉 로마네스크 시기의 맨틀
(출처: The mode in furs, (2010), p.92)



〈그림 4〉 15세기 아민 우플란드
(출처: The mode in furs, (2010), p.92)



〈그림 5〉 1434년 모피 복식
(출처: 서양 복식사, (1997), p.139)



〈그림 6〉 1680 프랑스의 아민 가운
(출처: The mode in furs, (2010), p.92)



〈그림 7〉 1770 로코코시기의 플리스
(출처: 서양 복식사, (2006), p.217)



〈그림 8〉 1843 아민 드레스
(출처: The mode in furs, (2010), p.92)



〈그림 9〉 1886 워릭 백작부인의 모피 드레스
(출처: 서양패션 멀티콘텐츠, (2010), p.356)



〈그림 10〉 1950 크리스찬 디올의 모피 드레스
(출처: 20세기 패션, (2009), P.134)



〈그림 11〉 1987 Mary McFadden,
(출처: Vogue, (1987, 11))



〈그림 12〉 1993 Grosvenor,
(출처: Vogue, (1993, 11))

드를 착용하고 있어 상인계급에서도 부를 과시하기 위해 모피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홍숙, 1997).

이처럼 중세의 모피복식은 기독교적 상징물로 장식된 비잔틴의 왕·왕족·성직자들이 착용한 대례복에서 주술성이 나타났다. 왕은 족제비, 왕족들은 러시아 흑담비, 성직자들은 아민을 사용하여 신분을 드러냈으며, 고딕 시기에는 귀족들은 흑담비와 아민, 평민들은 수달과 사냥쥐를 사용하여 계급을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모피복식에서는 권위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귀족과 상인들은 모피로 화려하게 장식한 모피 복식을 착용하여 그들의 부를 과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사치성이 나타났다.

3. 근세

르네상스 시기에는 신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옮겨오고 절대왕정이 확립됨에 따라 인체미를 강조하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양식이 유행하였다. 복식에서는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고 러프 칼라로 목을 높이고 어깨를 넓어보이게 하며, 파딩게일로 엉덩이를 부풀리는 것이 특징이다. 평민들은 다람쥐 같은 저급 모피를 네글리제재킷(negligee-jacket) 등에 사용하였고, 귀족들은 흑담비, 아민 같은 고급모피로 사치스러운 복식을 착용하여 모피가 모든 계층에서 유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Wilcox, T, 2010).

바로크는 초기 실용적이고 검소한 네덜란드 복식에서 다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프랑스 복식으로 옮겨오면서 균형을 중요시했던 르네상스와는 다르게 불규칙한 조형미를 강조하게 되었다. 자유분방한 곡선으로 인체미를 강조하여 러플(ruffle), 태슬(tassel) 등으로 장식한 의복이 유행하였다(김민자 외, 2010). 그리고 처음으로 버슬이 등장하여, 허리는 코르셋으로 조이고 엉덩이를 더욱 부각시켜 여성의 몸을 강조하였다(신상옥, 2006). 특히 스커트의 밑단이 겹으로 드러나는 패티코트가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림 6>의 1680년대 프랑스의 여성 복식처럼 벨벳 가운의 가장자리와 겹으로 드러나는 스커트 밑단을 아민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또한 남녀노소 모두 머프를 애용하였는데, 귀족들은 흑담비, 어

민, 회색 다람쥐로 만든 머프를 착용하였고 평민들은 흰 모피로 만든 것을 착용하여 계급을 구분하였다(Wilcox, T, 2010).

로코코 복식에서는 바로크의 거대하고 화려한 양식에서 섬세하고 정교한 스타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신상옥, 2006). 이 시기에도 역시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고 가슴을 노출했으며, 스커트의 양 옆을 파니에로 확대시켜 몸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모피 드레스에서는 부드럽고 섬세한 모피 띠로 트리밍 장식하여 가슴과 목 등의 노출 부위를 강조하였다. 당시 모피로 장식한 패니어, 망테 등이 유행하였는데, 가장 유행했던 모피복식은 케이프형 외투인 플리스(fleece)로, <그림 7>처럼 화려한 색상에 트리밍 장식으로 고급 모피인 흑담비 등으로 섬세하게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플리스는 모피로 누빔을 하고 고급스러운 수를 놓고, 진동둘레 아래쪽의 트임과 가장자리를 모두 모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였다. 신상옥(2006)에 의하면 이러한 플리스는 18세기에 가장 유행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얇은 무명으로 만든 모슬린드레스가 유행하였기 때문에 보온을 위해 모피로 만들어진 플리스가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근세에는 모피가 모든 계층에서 유행하였는데, 르네상스의 귀족들은 흑담비·아민 등의 고급 모피, 평민들은 다람쥐 같은 저급 모피를 복식에 사용하였으며, 바로크의 귀족들은 흑담비·아민·회색 다람쥐로, 평민들은 흰색 모피로 만든 머프를 착용하여 계급을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모피 복식에서는 권위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로코코의 귀족 여성들은 스커트와 플리스에 아민·흑담비 등의 고급 모피로 화려하고 정교하게 장식하여 그들의 부를 과시하였는데, 이러한 모피 복식에서는 사치성이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목과 어깨, 가슴을 노출하고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며, 파딩게일·버슬·파니에로 엉덩이를 부풀린 드레스에 모피를 사용하여 성적 매력을 부각시켰는데, 이러한 모피 드레스에서는 관능성이 나타났다.

4. 근대

고대 그리스·로마의 정신을 회고하고, 당시로

돌아가고자 했던 신고전주의시대의 복식은 그리스·로마풍의 간소한 엠파이어 스타일이 특징이다. 로코코시기 등장했던 플리스의 유행이 이어졌지만, 실용적이고 간소한 형태로 변화했다. 형태가 단순해진 대신, 트리밍 장식으로는 더 희귀하고 고급스러운 모피를 사용하는데 집중하여 친칠라(chinchilla), 흑담비, 밍크, 화이트폭스(white-fox), 시베리아울프(siberia-wolf) 등의 고급 모피를 사용했다. 1800년대 초반, 유럽의 혹독한 추위로 인해 다양한 아이템에 모피로 안감을 더해 온을 높인 복식이 유행하였다(Wilcox, T, 2010).

낭만주의는 급진적인 변화를 겪던 당시의 정세와 상반되는 감성으로 등장하여, 사회 전반 부유한 계층들이 문학, 음악, 미술 등에 열광하여 낭만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복식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과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e style)이 유행하였는데,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고 소매와 스커트를 거대하게 부풀린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관능적인 드레스의 네크라인, 소매, 스커트 밑자락 등에 담비·아민 등의 모피로 장식하여 귀족풍의 사치스러운 드레스가 부활하였다(김민자 외, 2010). <그림 8>은 1843년 여성의 복식으로, 크리놀린 드레스에 깊게 파인 데콜타주를 어민 버서칼라로 강조하였다. 또한 1860년대에 귀족들에게 크게 유행했던 망토는 황후 외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다람쥐 안감에 블루 폭스 등 값비싼 소재와 장식을 사용하여 평민계급과 구별되게 하였다.

19세기말은 산업혁명을 겪으며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부르주아 여성들은 사치스러운 드레스로 치장하였는데,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아워글래스 스타일(hour-glass style)·아르누보 스타일(art nouveau style) 등에 모피로 네크라인, 소매 등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그림 9>는 1886년 워릭 백작부인의 사진으로, 백작부인은 전형적인 버슬스타일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모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드레스는 버슬로 엉덩이를 강조하여 여성의 몸을 관능적으로 표현하였다(Mendes & Haye, 1999/2011). 그리고 여성의 복식에서도 투피스 스타일(two-piece style)이 유행하면서 짧은 재킷이나 작은 케이프






등의 외투에 겹감으로 모피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대의 귀족들은 값비싼 다람쥐 안감에 블루 폭스 등을 사용한 황후 외투라는 모피 망토를 착용하여 평민계급과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모피복식에서는 권위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기에는 엠파이어 스타일·로맨틱 스타일·크리놀린 스타일 등의 드레스 앞여밈 부분과 네크라인·소매·스커트 단 등에 흑담비·아민·화이트 폭스·시베리아 울프 등의 고급 모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모피 복식에서는 사치성이 나타났다. 또한, 낭만주의와 19세기 말 귀족 여성들은 깊게 파인 데콜타주로 목과 가슴을 노출하고,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며, 크리놀린과 버슬로 엉덩이를 부풀린 드레스에 모피를 사용하여 성적 매력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모피 드레스에서는 관능성이 나타났다.

5. 20세기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열렸던 세계박람회에서 오프쿠튀리에(haute couturie)들이 모피의상을 대거 발표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장으로 모피가 코트의 겹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며 라쿤(raccoon)등의 거친 느낌의 모피가 드라이빙 웨어(driving wear)에 사용되었다. 또한 제 1,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복식은 실용적이고 활동적으로 나타났다. 양털로 된 유틸리티 재킷(utility jacket)과 무톤 재킷(muton jacket)이 유행하였고, 사향쥐나 다람쥐 등의 저렴한 모피로 만든 실용적인 코트도 유행하였다. 전쟁 후, 다시 여성성을 되찾고자 했던 열망으로 에드워드 몰리녹스(Edward Morleynox)·크리스티앙 디올(Christian Dior) 등의 디자이너들은 우아하고 세련된 드레스와 투피스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소매·네크라인·머플러 등에 모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시기에는 셰이핑(shaping)·쉬어링(shearing)·레이저(laser) 등 모피의 가공법과 염색기술이 큰 발전을 이루어, 모피를 직물처럼 드레이핑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디자인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Wilcox, T, 2010). <그림 10>은 1950년대 디올이 발표한 우아한 시스드레스(sheath dress)이다. 인체의 실루엣을 그

〈표 1〉 고대부터 20세기까지 나타난 모피복식의 특징

구분	시대	고대 (BC3000 ~AD500)	중세 (5C~15C)	근세 (17C~18C)	근대 (19C)	20세기	
사회·문화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과 계급 구분 · 종교가 중요 · 영혼불멸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과 계급 구분 · 종교가 중요 · 십자군전쟁 발발 · 모피 대량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과 계급 구분 · 신분에 따른 모피 제한 · 모피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교전주의, 낭만주의의 영향 · 1800년대 추위로 모피 유행 · 산업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0년 세계박람회에서 모피가 인기 · 드라이빙 웨어로 모피 유행 · 1, 2차 세계대전의 영향 ·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 모피의 가공법과 염색기술 발전 	
	모피복식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장은 켈터 위에 레오파드 모피 걸쳐 대례복으로 착용 · 왕은 왕위를 상징하기 위해 사자의 꼬리 착용 · 왕족들은 호표범, 레오파드 모피 튜닉 착용 · 로마 상의원들은 털가죽 펠리터 착용 · 대의원들은 양모 토가를 걸쳐 계급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에 상관없이 모피 사용 · 귀족들은 가문의 상징과 문장을 복식에 화려한 모피로 장식 · 귀족들은 흑담비, 다람쥐, 회색 다람쥐를 사용 · 평민들은 담비, 수달, 사향쥐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모피를 과도하게 사용 · 남녀노소 모두 모피로 된 머프와 비버로 만든 모자 착용 · 귀족들은 흑담비, 어민, 회색 다람쥐로 만든 최고급 머트 착용 · 일반사람들은 흰 모피로 만든 것을 착용 · 로코코에서는 여성스러운 복식에 모피머로 장식 · 모피로 장식한 패니아, 망테 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온을 위해 다양한 아이템에 모피로 안감을 덧대거나 장식 · 모피로 안감을 덧댄 의출용 드레스나 네글리제 의복도 모피장식 가운데라 불리며 유행 · 흑담비, 밍크, 담비, 친칠라, 여우 등의 유행 · 크리놀린 드레스와 모피 케이프가 항상 함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피를 코트의 걸감으로 사용 · 라쿤 코트는 여대생들 사이에서도 유행 · 사향쥐, 다람쥐 등의 저렴한 모피로 만든 실용적인 모피코트 유행 · 유명 디자이너들의 모피 컬렉션 발표 · 염색기술의 발달로 모피 색상의 다양화 · 모피를 직물처럼 드레이핑하는 방식 도입으로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 	
조형적 특성	실루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림 · 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버사이즈 · 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트 · 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트 · 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 · 슬림 · 오버사이즈 · 쇼트 · 피티드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운 · 그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이트 · 브라운 · 블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운 · 베이지 · 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 · 화이트 · 브라운 · 핑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 · 오렌지 · 카키 · 레드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오파드 · 호표범 · 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블 · 밍크 · 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 · 마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칠라 · 폭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밍크 · 램 · 폭스 · 래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블 · 친칠라
	아이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튜닉 · 스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틀 · 푸르푸엥 · 우플랑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리스 · 머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킷 · 머프 · 코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트 · 머플러 · 베스트 · 재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오버 · 블레로 · 집업재킷
미적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성 · 권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성 · 권위성 · 사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성 · 사치성 · 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성 · 사치성 · 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치성 · 우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능성 · 활동성 	
이미지							

대로 강조하는 여성스러운 라인에, 고급 실크소재를 사용하고 슬림한 드레스와 대비되는 소매 부분에는 브라운 색상의 밍크를 장식하였다 (Mendes & Haye, 1999/2011).

그리고 1980년대에는 발렌티노(Valentino Garbani)·디올·펜디(Edoardo Fendi)·마이클코어스(Michael Kors)·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등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여피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모피 패션을 많이 선보였다. <그림 11>은 1987년 메리 맥퍼든(Mary Mcfadden)이 발표한 과시적이고 사치스러운 모피코트이다. 어깨를 강조한 오버사이즈에 칼라가 어깨를 덮을 만큼 크고, 화려한 레오파드 패턴의 모피를 사용, 검은색 원피스와 대비되게 하여 화려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과 펑크(punk), 힙합(hip-hop), 그룬지(grunge) 등의 하위문화의 영향은 모피패션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야기 시켰는데, 모피로 된 숏 재킷(short jacket)·풀오버(pullover)등의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했다. <그림 12>는 그로브너(Grosvenor)가 1993년 발표한 모피 집업 재킷(zip-up jacket)이다. 재킷은 루즈한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짧고 가벼운 모피를 사용하였으며, 여밈으로 지퍼를 사용하고 고무 밴드로 밑단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1994년에 마크 제이콥스가 발표한 모피 재킷은 길이가 매우 짧고, 쉬어링 공법으로 부드럽게 깎은 화이트 밍크를 사용하여, 몸에 피티드 실루엣과 노출된 긴 다리와 함께 관능미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세기 모피는 염색·셰이핑·쉬어링·레이저 등 가공법이 발전하면서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얇고 부드러운 모피는 피티드 실루엣이 가능해져 여성의 몸을 대담하게 드러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모피 복식에서는 관능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1950년대 폴리녹스와 디올 등이 발표한 여성스러운 실루엣에 소매와 넥라인 등을 밍크로 장식한 세련된 모피복식에서는 우아성이 나타났다. 또한 1980년대 여성 여피들은 각진 어깨와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광택 있는 밍크와 화려한 레오파드로 된 유명 디자이너의 코트 등으로 그들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였는데, 이러한 복식에서는 사치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모피는 오프투리예의 고급의상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의복에서도 많이 사용되었

는데, 라쿤으로

된 드라이빙 웨어·양털로 만들어진 유틸리티 재킷과 무튼 재킷·사향쥐나 다람쥐 등의 저렴한 모피로 만든 실용적인 코트·볼레로·숏재킷·풀오버·집업 재킷들로, 이러한 모피복식에서는 활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Ⅲ. 최근 컬렉션에서 나타난 모피 패션의 미적특성 분석

미적특성은 한수연, 2005·고현진, 2003·이정은, 2013·김민자, 2013·박선영, 2013·이연주, 2008) 등 복식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사치성, 관능성, 우아성, 활동성, 유머성, 기괴성, 저속성으로 분류하였다.

1. 사치성

사치성은 필요한 것을 넘어선 소비에서 오는 성격이며, 풍성하고 값비싸고 과장된, 세련된, 지나치게 화려한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식에서는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자신의 부를 강력하게 표출하는데, 수준 높은 디자인, 고급 소재, 화려한 색상, 과한 장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소재에서는 폭스, 밍크, 깃털, 브로케이드(brocade), 벨벳(velvet) 등의 럭셔리한 소재들이 사치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낸다(한수연,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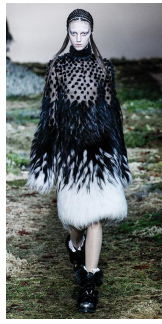
<그림 13>은 2011년 마이클 코어스가 발표한 패션으로, 그레이(grey) 색상의 스웨이드(suede) 원피스와 모피코트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모피코트는 길이가 길고 부피가 큰 오버사이즈 실루엣이며 색상은 화이트와 그레이가 믹스되었고, 털이 길고 풍성하여 호사스러우며 과시적이다. <그림 14>는 2011년 구찌(Gucci)에서 발표한 것으로, 셔츠·스커트·레더 부츠(leather boots)·플로피 햇(floppy hat)에 빅 사이즈의 모피 재킷을 매치하였다. 강렬한 레드 컬러를 사용한 아이템들에 비비드한 퍼플 컬러의 풍성한 폭스 재킷을 코디하여 화려함을 극대화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펜디는 어깨를 강조한 오버사이즈 실루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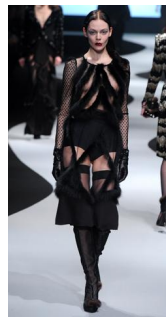
〈그림 13〉 Michael Kors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1))



〈그림 14〉 Gucci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1))



〈그림 15〉 Alexander
Mcqueen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4))



〈그림 16〉 Victor&Rolf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2))



〈그림 17〉 Fendi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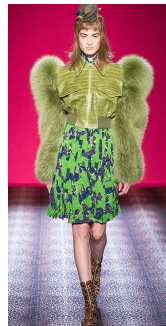
〈그림 18〉 Givency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4))



〈그림 19〉 Las Copains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4))



〈그림 20〉 Fendi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4))



〈그림 21〉 Schiaparelli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4))



〈그림 22〉 Fendi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4))



〈그림 23〉 Victor&Rolf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2))



〈그림 24〉 Chanel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0))



〈그림 25〉 Fendi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5))



〈그림 26〉 3,1 Phillip Lim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3))



〈그림 27〉 Fendi
(출처: Collection DongA TV, (2014))

에 그레이·오렌지·블랙 등 다양한 컬러가 믹스된 화려한 모피코트를 발표하여 주목받았다.

이와 같이, 사치성은 수준 높은 디자인, 고급 소재, 화려한 색상, 과한 장식 등으로 자신의 부를 강력하게 표출하는 복식에서 주로 나타나는 데, 최근의 컬렉션에서는 마이클 코어스·구찌·

펜디 등이 발표한 모피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털이 긴 화이트·그레이가 믹스된 고급스럽고 광택이 뛰어난 폭스코트,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그레이·오렌지·블랙 등의 컬러가 믹스된 화려한 모피 코트, 비비드한 퍼플 컬러의 폭스를 풍성하게 사용한 재킷

에 강렬한 레드 컬러의 셔츠·스커트 등을 함께 매치한 화려한 모피 패션 등이 대표적이다.

2. 관능성

관능성은 주로 여성의 신체에서 오는 성적인 매력을 추구한다. 피티드 실루엣, 피부를 연상시키는 색상과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 과한 노출 등에서 이러한 미가 나타나며, 여성의 복식에서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적인 면에서 벗어나 신체의 곡선을 강조하고, 노출하고, 장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다. 특히 관능성은 의복의 소재를 통해 그 특성이 나타나는데, 비치는 소재, 신축성, 광택이 있는 소재들이 있으며 특히 동물의 털이나 가죽, 깃털은 관능미를 극대화시키는 소재이다(한수연, 2005).

〈그림 15〉는 2014년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이 디자인 한 원피스로, 시스루(see-through) 소재와 모피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상의는 블랙컬러의 시스루 소재에 몸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블랙컬러의 모피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스커트의 풍성한 모피와 대비되어 노출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림 16〉은 2012년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가 발표한 피티드 실루엣 원피스로, 매쉬(mesh)와 시스루 등의 비치는 소재에 모피를 줄무늬처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상체와 팔·허벅지 등의 노출 부위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2013년 생로랑이 발표한 베스트는 피부와 유사한 핑크베이지 컬러의 풍성한 폭스를 사용하고, 숏 팬츠에 비치는 스타킹을 매치하여 긴 다리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와 같이, 관능성은 주로 피티드 실루엣에 피부를 연상시키는 색상, 부드러운 촉감과 비치는 소재 등을 통해 성적인 매력을 추구하는 복식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최근의 컬렉션에서는 알렉산더 맥퀸·빅터 앤 롤프·생로랑이 발표한 모피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블랙 컬러 시스루 원피스에 블랙 컬러의 모피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상반신을 노출 시킨 모피 원피스, 피티드 실루엣의 시스루 소재 원피스에 블랙 컬러의 모피를 사용하여 가슴·허리·팔·허벅지 등을 그대로 드러낸 모피 원피스, 긴 다리를 그대로 노출시킨 숏 팬츠에 피부와 유사한 컬러

의 풍성한 폭스 베스트를 매치한 모피 패션 등이 대표적이다.

3. 우아성

우아성은 주로 여성적인 아름다움에서 오는 미적특성으로, 그 중에서도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여성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복식에서는 슬림 하고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실루엣, 보수적이고 품위가 있으며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상과 광택이 있는 고급소재, 절제된 장식과 정교한 장식 등에서 나타난다(고현진, 2003).

〈그림 17〉은 2014년 펜디가 디자인한 모피 원피스이다. 슬림한 실루엣에 광택이 뛰어난 블랙 밍크를 사용하고, 정교하게 장식한 플라워 코르사주로 우아한 여성미를 강조하였다. 〈그림 18〉은 2014년 지방시(Givency)가 발표한 모피 원피스로, 상의와 스커트에 각각 다른 모피를 정교하게 가공하여 마치 투피스처럼 보이는데, 슬림한 실루엣에 은은한 핑크베이지로 우아한 여성미를 강조했다. 그리고 같은 해 스키피아렐리(Schiaparelli)는 흐르는 듯한 실루엣에 광택이 아름다운 블랙 원피스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모피 솔로 품위 있는 모피패션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우아성은 주로 슬림하고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실루엣,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상과 광택이 있는 고급 소재, 절제된 장식과 정교한 장식 등으로 여성미를 표출하는 복식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최근의 컬렉션에서는 펜디·지방시·스키피아렐리가 발표한 모피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슬림한 실루엣에 광택이 뛰어난 블랙 밍크를 사용하고, 정교한 플라워 코르사주로 장식한 밍크 원피스, 정교하게 가공한 핑크베이지의 모피를 사용한 슬림 원피스, 블랙 컬러의 원피스에 광택이 아름다운 모피 솔로 완성한 품위 있는 모피 패션 등이 대표적이다.

4. 활동성

활동성은 의복이 기능과 실용적인 목적에 부합하여, 신체 각 부위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로 오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몸의 움직임에 편안하게 하는 소재, 패턴, 재봉기술의 등장으로 의복에서의 활동성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미니멀리즘, 스포티즘 등의 경향으로 활동성은 더욱 강조되었다(이정은 외, 2015).

〈그림 19〉는 2014년 레 코뱅(Les Copains)이 발표한 디자인으로, 짧은 모피 재킷과 목까지 올라오는 상의, 스포티한 팬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슬림한 실루엣에 짧은 길이와 하프소매, 얇은 밉크로 활동성을 강조한 모피 재킷이 돋보인다. 〈그림 20〉은 2014년에 펜디에서 발표한 모피패션으로 집업 재킷과 조거팬츠(jogger-pants)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재킷은 실버 밉크에 여유 있는 실루엣과 짧은 길이로 네크라인과 소매, 밑단을 밴딩 처리하고 여밈으로는 지퍼를 사용하여 마치 트레이닝 웨어 같은 스포티한 이미지를 표출하였다. 2012년 디스퀘어드 2(dsquared 2)는 롤업한 스키니진에 여유 있는 실루엣의 얇게 깎은 모피를 사용하고 화이트와 오렌지, 레드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모피셔츠를 매치하여 경쾌한 모피 패션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성은 기능적인 형태와 디테일, 소재 등으로 신체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복식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최근의 컬렉션에서는 레 코뱅·펜디·디스퀘어드 2 등이 발표한 모피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스포츠 팬츠에 가볍고 얇은 실버 밉크를 사용하여 몸판과 소매를 짧게 한 모피재킷으로 스포티룩을 완성한 모피 패션, 조거 팬츠에 짧은 길이와 고무단, 지퍼 여밈 등의 기능적인 요소가 특징인 재킷을 매치한 스포티한 모피패션, 스키니진에 여유 있는 실루엣의 얇은 모피에 경쾌한 오렌지와 레드 컬러 스트라이프 패턴이 특징인 모피 셔츠로 완성된 모피 패션 등이 대표적이다.

5. 유머성

유머성은 자기표현, 개인적 자유, 권위에 대한 반란, 전통에 대한 거부를 은유적으로 드러냄으로서 패션의 유희적인 면을 추구한다. 복식에서는 신체의 일부분을 과장되게 강조한 형태, 이질적 소재의 결합, 빨강·파랑·노랑 등 원색의 사

용, 화려한 패턴, 과도하고 우스꽝스러운 장식 등으로 독특함과 재미를 추구하며 유머성이 나타났다(김민자, 2013).

〈그림 21〉은 2014년 스키아파렐리가 발표한 모피패션으로, 모피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다. 스커트는 그린과 블루, 퍼플 컬러의 보색 대비가 독특한 느낌을 주며, 모피 재킷은 소매를 과도하게 강조하여 재미있는 요소를 더하였는데, 몸판 부분은 허리 위 까지 올라오는 짧은 길이인 반면, 소매에는 풍성하고 길이가 긴 소재인 폭스를 사용하고 독특한 올리브 색상을 사용하여 독창적이고 재미있게 나타났다. 〈그림 22〉는 2014년 펜디의 디자인으로, 슬림하고 여성스러운 라인의 원피스에 모피를 자유롭게 부분적으로 장식하였다. 원피스에서도 시스루 소재와, 두꺼운 모직소재를 사용하여 이질적 소재에서 오는 재미성이 드러났고, 거기에 모피를 가장자리나, 트리밍이 아닌 의외의 부분에 사용하여 독특함과 재미가 느껴진다. 그리고 같은 해 생로랑은 풍성한 모피를 사용한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블랙과 화이트 도트로 포인트를 주어 독특한 느낌을 더한 모피코트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유머성은 신체의 일부를 강조한 형태, 선명한 원색, 이질적 소재의 결합, 과도하고 우스꽝스러운 장식 등을 통해 패션의 유희적인 면을 추구하는 복식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최근의 컬렉션에서는 스키아파렐리·펜디·생로랑 등이 발표한 모피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색대비와 독특한 패턴으로 된 스커트에 선명한 그린 컬러의 풍성한 폭스로 소매를 과도하게 장식한 모피 재킷, 슬림한 시스루·울 원피스에 블랙 밉크를 사용하여 재미있게 장식한 모피 원피스,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블랙과 화이트의 도트 패턴으로 독특한 느낌을 주는 모피 코트 등이 대표적이다.

6. 기괴성

기괴성은 외관이나 분위기가 의외의 조합으로, 괴상하고 기이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착장의 예절이나 순서, 규칙을 파괴하고 무 형태 또는 형태를 왜곡하거나 부적절하게 결합, 추레한 차림새나 제멋대로 연출한 차림새, 해체 등의

〈표 2〉 모피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 분석

구분	미적특성	사치성	관능성	우아성	활동성	유머성	기괴성	저속성
정의		· 화려한 · 호사스러운 · 과장된 실루엣 · 고급소재 · 화려한 장식	· 성적인 매력 · 피티드 실루엣 · 부드러운 소재 · 노출	· 고상한 · 기품 있는 · 차분한 · 고급스러운 · 슬림한 · 곡선적인 실루엣 · 은은한 색상 · 부드러운 소재	· 기능적 · 실용적 · 슬림한 · 피티드 실루엣 · 짧은길이 · 가벼운 소재 · 지퍼나 밴드 등의 디테일	· 평범함을 거부 · 장난스러운 · 흥미와 재미 · 독특한 · 과장된 실루엣 ·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 · 선명한 색상 · 과도한 장식	· 괴상한 · 기이한 · 변형 · 왜곡 · 과장 · 착시	· 산만한 · 저렴한 · 과한장식 · 흐트러진 · 싸구려 같은
특징		· 세이블 등 희귀한 소재 · 고급 모피 · 화려한 패턴과 색상 · 풍성하고 긴 길이의 오버사이즈	· 풍성한 실루엣 · 부드러운 촉감 · 트리밍을 통한 노출 · 피티드 실루엣	· 광택 있는 모피 · 몸에 흐르는 듯한 실루엣 · 은은하고 차분한 색상 · 부드러운 촉감	· 여유 있는 실루엣 · 짧은 길이 · 가볍고 얇은 모피 지퍼, 고무단 등의 기능적 요소	· 선명하고 화려한 색상 · 풍성하고 긴 모피 · 과장되고 독특한 실루엣 · 독특한 컷팅 등의 가공법	· 과장되고 독특한 실루엣 · 모호한 형태 · 거대하게 부풀린 형태	· 불규칙한 형태 · 루즈한 실루엣 · 패치워크로 · 그런지한 이미지 · 과하고 산만한 장식
조형적 특징	라인· 실루엣	· 오버사이즈 · 볼륨있는	· 피티드 · 롱	· 곡선적인 · 슬림	· 쇼트 · 슬림 · 유연한	· 과장된 · 슬림 · 오버사이즈	· 모호한 · 과장된 · 오버사이즈	· 오버사이즈 · 불규칙한
	색상	· 화이트&그레이 · 그레이&오렌지&블랙 · 비비드 퍼플	· 블랙 · 핑크 베이지	· 핑크 베이지 · 블랙	· 광택있는 실버 · 밝은 갈색 · 오렌지&레드 줄무	· 비비드 그린 · 블랙 · 블랙&화이트 도트	· 어두운 브라운 · 탁한 베이지	· 어두운 카키 · 베이지 · 브라운 · 네온 블루 · 퍼플
	소재	· 광택이 뛰어난 폭스	· 얇은 밍크 · 폭스	· 얇게 깎은 밍크	· 가벼운 밍크 · 깎은 래빗	· 볼륨있는 폭스	· 거친 모피 · 별키한 램	· 롱 헤어 폭스
	아이템	· 코트 · 재킷	· 시스루 원피스 · 롱베스트	· 원피스 · 숄	· 숄 재킷 · 집업 재킷 · 셔츠	· 빅 솔더 재킷 · 원피스 · 코트	· 팬츠 · 비정형적인 패딩 · 접퍼	· 코트 · 헤어 피스 · 새기 스커트
디자인어	· 마이클 코어스 · 구찌 · 펜디	· 알렉산더 맥퀸 · 빅터앤롤프 · 생 로랑	· 펜디 · 지방시 · 스키아파렐리	· 디스콤폽 · 펜디 · 디스퀘어드2	· 스키아파렐리 · 펜디 · 생 로랑	· 비터엔롤프 · 샤넬 · 펜디	· 3.1 필립 림 · 펜디	
이미지								

특징을 통해 나타난다(김민자, 2013). 복식에서는 거대한 부피, 극단적으로 과장되거나 축소된 실루엣, 지나친 노출이나 은폐 등을 통해 나타난다(박선영, 2013).

〈그림 23〉은 2012년 빅터 앤 롤프의 디자인으로, 모피를 컷팅 한 듯 보이는 기이한 패턴이 특

징적이다. 어깨·소매·몸판이 연결된 것처럼 모피를 컷팅 하여 코트의 구조를 모호하게 하였다. 〈그림 24〉는 2010년 샤넬(Chanel)에서 발표한 팬츠수트로, 허리 아래 부분을 모피로 풍성하게 강조하고, 팬츠 또한 모피를 사용하여 재킷과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다. 그리고 실제 동물을 연상시

키는 모피를 사용하여 규범과 상식을 벗어난 패션을 선보였다. <그림 25>는 2015년 펜디가 발표한 디자인이다. 패딩 점퍼를 극도로 과장하여, 거대한 부피로 어깨선·허리선 등의 위치가 모호하며 상체를 덮을 만큼 과장된 양털 칼라로 포인트를 주어 기이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기괴성은 거대한 부피, 극단적으로 왜곡된 형태, 지나친 노출이나 은폐, 의외의 조합 등을 통하여 괴상하고 기이함을 추구하는 복식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최근의 컬렉션에서는 빅터 앤 롤프·샤넬·펜디 등이 발표한 모피 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이한 패턴으로 어깨·몸판·소매 등 코트의 구조적인 형태를 모호하게 만든 모피코트, 실제 동물을 연상시키는 모피를 사용하여 재킷의 밑단부터 팬츠까지 경계를 모호하게 한 팬츠 수트, 패딩 점퍼를 극도로 과장하여 거대한 부피로 어깨선·허리선 등의 위치가 모호하며 상체를 덮을 만큼 과장된 양털 칼라로 포인트를 준 모피 코트 등이 대표적이다.

7. 저속성

저속성은 지나치게 산만하고 저렴해 보이는 장식 등을 통해 일부러 저속함을 나타내는 패션으로서 자극적이면서 저속한 색채,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의 매치, 패턴의 무질서한 누적, 패치 워크나 과도한 트리밍의 사용, 싸구려 액세서리의 과잉장식 등으로 저속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을 말한다(이연주, 2008).

<그림 26>은 2013년에 3.1 필립 림(philip lim)이 발표한 디자인으로, 험령한 팬츠에 카키·베이지·블랙·그린 등의 모피 조각을 불규칙하게 이어붙인 코트로 그런지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그림 27>은 2014년 펜디에서 발표한 모피패션이다. 거친 소재로 싸구려 느낌을 주는 롱코트에 아무렇게나 자른 카키·블랙 등의 모피 조각을 무질서하고 조잡하게 붙여 산만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3년 펜디는 비비드한 퍼플 컬러의 모피 헤어장식에, 화려한 블루와 블랙이 믹스된 모피 새기 스커트를 매치한 패션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산만해 보이는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저속성은 지나치게 산만하고 저렴

해 보이는 장식, 천한 옷차림과 싸구려 액세서리 등으로 과잉 장식된 복식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최근의 컬렉션에서는 필립 림·펜디 등이 발표한 모피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험령한 팬츠에 카키·베이지·블랙·그린 등의 모피 조각을 불규칙하게 이어붙인 코트로 그런지 룩을 완성한 모피패션, 거친 소재에 아무렇게나 자른 모피 조각을 조잡하게 붙여 산만해 보이는 모피코트, 비비드한 퍼플 컬러의 모피 헤어장식에 화려한 블루와 블랙이 믹스된 모피 새기 스커트를 매치한 모피패션 등이 대표적이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대부터 20세기까지 모피 복식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모피 복식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추출하여 이러한 미적 특성들이 최근의 컬렉션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부터 20세기까지의 모피복식에 나타난 미적특성은 주술성·권위성·사치성·관능성·우아성·활동성이다. 주술성은 고대 이집트의 제사장이 종교적 의식을 치를 때 쉐티 위에 걸쳤던 레오파드 대레복과 튜닉, 중세 비잔틴의 왕과 왕족·성직자들이 착용했던 기독교적 상징물로 장식된 대레복에서 나타났다. 권위성은 신분과 계급을 드러내기 위해 착용한 모피복식, 즉 이집트의 왕을 상징했던 사자의 꼬리·왕족들의 팬서와 레오파드 모피튜닉, 로마의 상의원과 대의원의 토가와 펠리티, 중세 귀족들의 흑담비와 아민 튜닉, 근세 귀족들의 흑담비·아민·회색 다람쥐로 된 머프, 근대 귀족들의 값비싼 다람쥐와 블루 폭스로 된 망토 등에서 나타났다. 사치성은 부와 사치를 과시하기 위해 착용한 모피복식, 즉 중세 귀족과 상인들의 화려한 모피 복식, 로코코 귀족 여성들의 아민과 흑담비로 가장자리를 화려하게 장식한 플리스,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기에는 엠파이어 스타일·로맨틱 스타일·크리놀린 스타일 등의 드레스 앞여밈 부분과 네크라인·소매·스커트 단 등에 흑담비·아민·화이트 폭스·시베리아 울프 등의 고급 모피로 화려하게

장식한 복식, 1980년대에는 여성 여피들의 오버 사이즈의 화려한 모피코트 등에서 나타났다. 관능성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부각시킨 모피복식, 즉 로코코 귀족 여성들이 목과 어깨, 가슴을 노출하고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며, 파딩게일·버슬·파니어로 엉덩이를 부풀리고 모피로 장식한 드레스, 낭만주의 시기에는 코르셋으로 가는 허리를 강조하고, 버팀대로 엉덩이의 풍만함을 강조한 크리놀린과 버슬 실루엣의 모피장식 드레스, 1990년대 마크 제이콥스가 발표한 피티드 실루엣에 짧은 길이로 긴 다리를 노출한 모피패션 등에서 나타났다. 우아성은 고상하고 차분한 여성미를 추구하는 모피복식, 즉 1950년대 몰리눅스와 디올 등이 발표한 여성스러운 실루엣에 소매와 네크라인 등을 밉크로 장식한 세련된 모피장식 드레스와 투피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활동성은 실용적인 모피복식, 즉 20세기 초반 등장한 라쿤으로 된 드라이빙 웨어·양털로 된 재킷과 무튼 재킷·사향쥐나 다람쥐 등의 저렴한 모피로 만든 실용적인 코트, 1990년대에서는 숏재킷·폴오버·모피 작업 재킷 등에서 나타났다.

둘째, 최근 컬렉션에서 나타난 모피패션의 미적특성은 사치성, 관능성, 우아성, 활동성, 유머성, 기괴성, 저속성이다. 사치성은 부와 사치를 표출한 모피복식, 즉 마이클 코어스·구찌·펜디 등이 발표한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털이 긴 화이트·그레이가 믹스된 고급스럽고 광택이 뛰어난 폭스코트,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그레이·오렌지·블랙 등의 컬러가 믹스된 화려한 모피 코트, 비비드한 퍼플 컬러의 폭스를 풍성하게 사용한 재킷에 강렬한 레드 컬러의 셔츠·스커트 등을 함께 매치한 화려한 모피 패션 등에서 나타났다. 관능성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부각시킨 모피복식, 즉 알렉산더 맥퀸·빅터 앤 롤프·생로랑이 발표한 블랙 컬러 시스루 원피스에 블랙 컬러의 모피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상반신을 노출 시킨 모피 원피스, 피티드 실루엣의 시스루 소재 원피스에 블랙 컬러의 모피를 사용하여 가슴·허리·팔·허벅지 등을 그대로 드러낸 모피 원피스, 긴 다리를 그대로 노출시킨 숏 팬츠에 피부와 유사한 컬러의 풍성한 폭스 베스트를 매치한 모피 패션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우아성은 고상하고 차

분한 여성미를 표출한 모피복식, 즉 펜디·지방시·스키아파렐리가 발표한 광택이 뛰어난 블랙 밉크에 정교한 플라워 코르사주로 장식한 밉크 원피스, 정교하게 가공한 핑크 베이지 컬러의 모피로 된 슬림 원피스, 블랙 컬러의 원피스에 광택이 아름다운 모피 솔로 완성한 모피 패션 등에서 강조되었다. 활동성은 실용적인 모피복식, 즉 레 코뱅·펜디·디스퀘어드 2 등이 발표한 스포츠 팬츠에 가볍고 얇은 실버 밉크를 사용하여 몸판과 소매를 짧게 한 모피 재킷으로 스포티룩을 완성한 모피 패션, 조커 팬츠에 짧은 길이와 고무단, 지퍼 여밈 등의 기능적인 요소가 특징인 재킷을 매치한 스포티한 모피패션, 스키니진에 여유 있는 실루엣의 얇은 모피에 경쾌한 오렌지와 레드 컬러 스트라이프 패턴이 특징인 모피 셔츠로 완성된 모피 패션 등에서 나타났다. 유머성은 독특함과 재미를 표현한 모피복식, 즉 스키아파렐리·펜디·생로랑 등이 발표한 보색대비의 독특한 패턴으로 된 스커트에 선명한 그린 컬러의 풍성한 폭스로 소매를 과도하게 장식한 모피 재킷, 슬림한 시스루·울 원피스에 블랙 밉크를 사용하여 재미있게 장식한 모피 원피스,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블랙과 화이트의 도트 패턴으로 독특한 느낌을 주는 모피 코트 등에서 강조되었다. 기괴성은 괴상하고 기이한 것을 추구한 모피복식, 즉 빅터 앤 롤프·샤넬·펜디 등이 발표한 기이한 패턴으로 어깨·몸판·소매 등 코트의 구조적인 형태를 모호하게 만든 모피코트, 실제 동물을 연상시키는 모피를 사용하여 재킷의 밑단부터 팬츠까지 경계를 모호하게 한 팬츠 수트, 패딩 점퍼를 극도로 과장하여 거대한 부피로 어깨선·허리선 등의 위치가 모호하며 상체를 덮을 만큼 과장된 양털 칼라로 포인트를 준 모피 코트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저속성은 일부러 저속함을 표현한 모피복식, 즉 필립 림·펜디 등이 발표한 험령한 팬츠에 카키·베이지·블랙·그린 등의 모피 조각을 불규칙하게 이어붙인 코트로 그런지 룩을 완성한 모피패션, 거친 소재에 아무렇게나 자른 모피조각을 조잡하게 붙여 산만해 보이는 모피코트, 비비드한 퍼플 컬러의 모피 헤어장식에 화려한 블루와 블랙이 믹스된 모피 새기 스커트를 매치한 모피패션 등에서 나타났다.

셋째, 모피복식의 미적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

치성, 관능성, 우아성, 활동성은 최근의 컬렉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피복식은 자신의 부와 사치를 강력하게 표출하며,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부각시키며, 고상하고 차분한 여성미를 추구하며, 신체 각 부위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실용적인 복식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식미의 특성은 시대에 따라 그 조형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과거 모피의 사용이 주로 의복의 디테일이나 트리밍 등 장식에만 머물렀지만, 최근에 와서는 모피 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얇고 광택과 촉감이 뛰어난 모피를 여러 색상으로 염색하여 의복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술성과 권위성은 현대 이후, 최근의 컬렉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초자연적 현상과 주술적 염원, 그리고 신분과 계급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더 이상 모피복식을 통해 이를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유머성과 기괴성, 저속성은 최근의 컬렉션에서 새롭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개인의 취향과 차이를 중요시 하는 최근의 사회적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모피패션에서도 독특함과 재미, 괴상하고 기이한 것, 저속함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의 실험적인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피복식은 과거 중요하게 여겨졌던 미적 가치들이 현대에서는 그 의미를 잃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조형적 특징이 변화되기도 하며, 또 새로운 미적특성이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모피복식은 여러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반영하고, 모피 가공법과 의복 기술의 발전, 패션디자이너의 감각 등에 영향을 받아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 꾸준히 변화할 것이며, 그에 따라 새로운 미적특성들이 나타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모피패션의 미적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고급 천연모피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최근 비견패션의 소재로서 트렌디하게 떠오르며 각광받고 있는 인조 모피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적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다혜. (2007). *현대 모피 패션 디자인의 이미지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현진. (2003). *복식에 표현된 엘레강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금기숙, 김민자, 김영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범, 신혜순, 유혜영, 최해주. (2012). *현대패션 110년*. 파주: 교문사.
- 김민자, 최현숙, 김윤희, 하지수, 최수현, 고현진. (2010). *서양패션 멀티콘텐츠*. 파주: 교문사.
- 김민자. (2013). *복식미학*. 파주: 교문사.
- 김영애. (2012). *모피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FENDI Collection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14). 모피의류의 상품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3), 135-149.
- 김지영. (2014). 밍크 모피 제품의 소모량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2), 177-188.
- 박선영. (2010. 8). 2010 F.W Trend Keywords. *ALLURE*, 자료 검색일 2015. 11. 12, 자료출처 http://www.allurekorea.com/content/view_03.asp?menu_id
- 박선영. (2013).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영, 박혜원. (2002). 모피소재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 2002 A/W 컬렉션을 중심으로. *디자인 연구*, -7), 85-103.
- 신상옥. (200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 이연주. (2008). *키치의 미적 특성을 응용한 패션 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형. (2015, 8). 한국 Fur 마켓. *Fnnews*, 자료 검색일 2016. 2. 25, 자료출처 www.fnnews.com
- 이유형. (2009). *모피 패션을 위한 디자인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신혜영, 이인성. (2015).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 디자인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2), 529-541.
- 임주희. (2009). *모피패션 디자인 기획 모형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현. (2011). 최근 이탈리아 퍼 마켓 트렌드. *Global window*, 자료검색일 2016. 1. 12, 자료출

- 치 www.globalwindow.org
- 장용훈. (2013). 1.7 billion dollar size America fur market (2013). *Global window*. 자료 검색일 2016. 1. 11, 자료출처 www.globalwindow.org
-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한수연. (2005). *현대패션에 표현된 글래머 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재윤. (2015). *현대모피패션에 나타난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 1980년대 이후 Vogue를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7(4), 161-172.
- Dong A TV Inc. (2010~2016). *Dong a tv collection*. Seoul: Dong A TV Inc.
- Mendes, V. & Haye, A. (2009). *20세기 패션* (김정은 역). 서울: 시공아트. (원저 1999 출판)
- VOUGE. (1987). *Vouge America*. New York : conde nast
- VOUGE. (1993). *Vouge America*. New York : conde nast
- Wilcox, T. (2010). *The mode in furs*, New York: Dover Publications